

# 소수민족의 새로운 민족문화의 형성과 정체성

-일본 홋카이도 아칸아이누고탄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 미 숙 (전북대학교)  
<1029miso@hanmail.net>

## 국문요약

소수민족의 인권과 문화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움직임과 여론은 그들의 삶과 정체성에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소수민족을 ‘그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타문화를 가진 소수집단’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족문화는 긴 시간 동안 주변의 다양한 요소들과 결합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소멸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하나의 민족문화로 천천히 자리를 잡아간다. 하지만 현재에는 경제적인 측면이 개입되면서 해당 민족문화(전통문화)를 이미지로 한 상품(관광상품)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민족문화의 변화 중 소수민족의 자립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민족문화의 생성과 유지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체성의 변화와 문제점(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아칸아이누고탄에서는 새롭게 형성된 민족문화가 생계를 위한 경제적인 기반과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누와 무관한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지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아이누 민족의 전통보다도 아이누의 이미지로 관광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정체불명의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물론 이것은 소수민족의 홍보나 이해를 돕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이누 민족의 전통문화의 의미와 형태는 점점 변질되고 있다. 즉 당사자인 아이누인들에게 잘못된 전통문화의 전수(계승)로 인한 민족 정체성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제어 : 아이누, 아칸 아이누 고탄, 민족 정체성, 민족문화

## I. 서론

소수민족의 인권과 문화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관심과 여론의 증가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문화 다양성’과 ‘다문화공생’이라는 담론으로 접근하면서 소수민족을 ‘그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타문화를 가진 소수집단’으로 바라보는 시선들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사회에서 지배집단은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문화에 적응하거나 동화하도록 강요하고, 소수집단은 “자기의 종족성을 새로운 경쟁과 타협의 자원으로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 한다. 따라서 정치나 경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하위집단으로 나누어져 서로 복잡하게 충돌하고 경쟁하며 타협한다(김광익 2006, 73). 복합사회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다문화공생담론이 형성된 것은 2000년대부터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이주민들이 증가하면서 민족론이 변한 것이다(이연옥 2013, 68-70).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전전(戰前)에는 정복자와 선주민족이 혼합된 혼합 민족론을, 전후에는 단일민족론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국력이 약할 때에는 단일민족론으로 민심을 다졌고 강해지면 혼합 민족론으로 주변국들의 침략을 정당화한 것이다(오구마에이지 2003, 54; 465-467).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이연옥 2013, 72). 따라서 정부나 관료들은 단일민족국가의 이미지를 직간접적으로 고수하고 있으며 소수민족의 인권이나 민족문화에 대한 정책적인 규제와 차별, 통제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주목할 점은 문화공생담론이 강조되면서 선주민족을 ‘민족(전통)문화’ 혹은 ‘유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타자화 하고 있다. 그래서 이처럼 유무형의 민족문화재나 문화정책들로 소수민족(집단)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족문화는 오랜 시간동안 주변의 다양한 요소들과 결합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소멸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간다. 특히 외부와의 교류나 침략을 통해서 융합되거나 말살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민족문화를 형성한다. 그리고 새로운 민족적 목표를 위해 수정되거나 의례화 혹은 제도화된다(에릭 홉스봄 2013, 28). 이러한 과정에서 민족문화는 민족 정체성의 형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현대에는 소수민족(집단)이 자립하기 위해 자신의 전통문화를 매개로 새로운 민족문화를 구축하고 관광지화하거나 상품화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민족(종족성)을 배경으로 한 문화’를 민족 정체성과도 관계성이 깊은 민족문화와 동일하게 취급해도 될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민족문화의 형태 중 자립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민족문화의 생성과정을 파악하고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정체성과의 연계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와진(和人, 본토 일본인의 옛 호칭)에 의해 만들어진 홋카이도 도동(道東)지역의 쿠시로시(釧路市) 아칸 호수(阿寒湖) 온천지역에 위치한 ‘아칸아이누고탄(阿寒アイヌコタン, 아칸 아이누 마을, 이하 ‘고탄’)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고탄내 아이누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 구축하고 있는 새로운 민족문화를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상을 살펴보고, 그것에 내포되어 있는 자기 정체성과 전승교육의 현황을 파악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아이누 민족문화의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헌 조사, 연구 대상지의 현지조사<sup>1)</sup>와 관련자의 인터뷰 내용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이는 문화의 다양성을 중요시하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문화진흥과 소수집단의 정체성과의 연계성, 더 나아가 현재와 같은 다문화 사회에서 소수집단의 문화 형성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민족문화와 정체성

민족이란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동일한 역사 경험을 가지고 공동의 역사인식을 가지며, 같은 언어를 통해 문화 공동체로서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1)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두 차례(겨울(2월-3월 중), 여름(7월-8월 중))씩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관련자들과의 인터넷 서신을 통해 추가 조사하였다.

다양한 민족들 속에서 자기를 타인과 구별하는 인식에서 유래된 것이다(이광규 2006, 7). 또한 종족 정체성은 친족관계(kinship, 혈통), 고유의 터전(commensality, 생계경제의 유형과 방식), 종교적인 제의(religious cults, 대표적인 신)의 문화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어서 복장, 음식, 가옥구조와 주거양식, 언어, 역사, 신체적 특성뿐만 아니라 의례, 절기, 풍속, 특정 금기, 특수한 의료기술과 행동들이 다른 집단과의 차이점으로 구별되어 스스로 표현하거나 타인에 의해 인식된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고 전승하는 행위는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행위이다(김광역 2006, 39). 특히 한 지역에 여러 소수민족들이 존재할 때에는 정치나 경제적인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이 소수민족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되면 지속적으로 같은 혈통이나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가졌다는 운명공동체적 의식, 더 나아가 문화적인 공통점을 공유하는 문화공동체적 의식이 존재한다(이광규 2006, 7-8). 즉, 민족은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만들어지고 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형성된 민족 정체성은 문화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가 지역, 국가에 따라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계속 변하는 것처럼 민족문화도 사회적으로 학습된 행동양식이 다음 세대로 전승되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요소가 개입되거나 학습, 혹은 적응하면서 상호작용하며 변해간다. 그리고 시대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전승되며 지역성이나 민족성, 국민성으로까지 발전한다(서해숙 2011, 176-178). 한편, 그 과정에서 문화들 간의 접촉은 새로운 관념들을 등장시키고 창조적이고 자유로울 수 있지만, 소중한 전통과 정체성의 기반을 손상시킬 수도 있으며 사회 간의 관계성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민족우월주의적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피터 N. 스텐스 2003, 16-17).

또한 민족문화의 핵심인 민속은 민중의 가치관과 삶, 시대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현대의 신자유주의에서는 상업주의적인 관점으로 상품화하고, 이익창출의 수단으로 간주되어 기존의 것들과 경쟁하고 상업주의를 지향하기도 한다. 더욱이 새로운 전통을 생성하는 경향도 있다(김재호 2011, 29-41). 홉스봄(에릭 홉스봄 2013)은 이러한 '만들어진 전통'은 과거와의 연속성을 인위적으로 내세우기 위해 과거의 상황들에 준한 형식이나 반강제적인 반복을 통해 나름대로의 과거를 구성한다고 한다. 특히 사회가 급변한 최근 200년 사이에 낡은 전통이 기반하고 있던 사회적 패턴들이 약화되거나 파괴되면서 낡은 전통과 충돌하거나, 낡은 전통과 그것들을 제도적으로 매개하고 보급하는 수단이 조화롭게 처리될 수 없을 것으로 판명되거나 사라져 버렸을 때 새로운 전통문화가 더 잘 만들어진다고(에릭 홉스봄 2013, 21-26). 이처럼 과거의 전통을 기반으로 구성된 새로운 문화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사라져가고 있었던 것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해당 소수민족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정체성의 형성에도 영향을 주는 민족문화를 평가할 때,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문화를 전통으로 인정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민족(전통)문화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사례에 대한 최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시대적인 흐름에 걸맞게 전통문화를 하나의 자본으로 인식하고 ‘활용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연구들이 많았다. 이 중에서 서해숙(2011)은 농촌사회에서 마을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와 농촌 간의 문화교류 프로그램 중 전통 문화에 현대적인 활용가치를 가미한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현대사회에서 전통문화의 재창조와 계승” 혹은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통합을 위한 문화적 대응”으로 기술하였다. 즉 전통문화에 현대미를 가미하여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민족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창식(2006)은 전통문화는 그 민족의 고유한 정신과 철학이 담겨 있으며 특히 자연과 인간과 초자연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에 생태계의 순환과 인간관계의 응보를 믿는 전통문화의 내재적 가치와 전통의 가변성을 들어 경제지상주의에 있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를 활용해야 한다. 또한 건전한 미래 문화를 위해서는 현대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전통문화의 창조가 필요하며 전통을 자본으로 한 문화산업으로의 육성을 강조하였다. 정상박(2010)은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유입, 생활양상의 변화 등의 원인으로 극심한 문화변동(사회변동)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의 정신과 정서가 서양인처럼 변해가고 있으며 전통적인 민족 정체성의 유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이에 자연적인 전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교육을 통한 인위적인 전승이 필요한데, 민족예술 교육을 통한 공동체 의식의 고취와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족교육을 강조하였다.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민족문화는 시대적인 변화 혹은 주변요소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 변화에 순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통한다. 그리고 민족문화는 역사성, 전통성, 지역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지금도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민족 정체성 형성에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외부요인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 2. 아이누의 민족문화 연구

일본의 대표적인 ‘국내식민지(內國植民地)’(桑原真人 1982, 2)인 홋카이도는 메이지시대 이후에 ‘일본(日本國)’으로 귀속되었다. 그 이후 독자적인 문화를 가졌던 아이누들은 보호와 동화정책으로 선주민족에서 소수민족으로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小熊英二 2003, 3-5).

이러한 차별은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일본정부가 소수민족의 인권과 문화보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이다. 이때부터 소수민족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여론의 영향으로 국제법과 일본국내법으로 문서화와 법제화 작업에 착수하였다. 특히 아이누의 문화를 ‘문화재보호법’으로 제정하고 정책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보호법의 항목에 적용되지 않는 민족문화도 상당수 존재한다(苑原俊明 2006, 41-42). 따라서 현실을 무시하고 시대적인 흐름과 여론을 고려한 배려 차원의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리고 소수민족을 문화 다양성의 측면에서 ‘일본 안에 존재하고 있는 타문화를 가진 소수집단’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소수민족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sup>2)</sup>는 그동안 아이누를 선주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일본정부에게 큰 부담을 주었다. 이러한 여세로 1997년에 재단법인 ‘아이누문화진흥연구추진기구’를 설립하고 일명 ‘문화진흥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아이누를 대내외적으로 공식화하고 문화를 중심으로 한 진흥정책을 추진하고자하는 정부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이에 2000년에는 ‘아이누문화진흥 등의 시설추진회의’가 설치되어 본격적으로 전통생활공간 재생이 포함된 검토가 진행되었으며 아이누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이누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활상이나 역사, 문화 등에 대한 정보를 와진들이나 방문 외국인들이 작성한 기록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주거형태나 집단구조, 신앙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은 사항들이 다수 존재할 수밖에 없다(財団法人アイヌ文化振興・研究推進機構 2012, 2). 이러한 연구의 한계 속에서 발표된 2010년 ‘보급개발을 위한 아이누문화 등 현황조사’에서는 민족문화의 유형을 구분하면서, “주변국들의 다양한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민족문화를 변화시켰으며 새로운 민족문화를 형성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財団法人アイヌ文化振興・研究推進機構 2012, 1). 또한 아이누의 민족문화의 특징은 종교적으로 높은 신앙심과 그로 인한 도덕성과 성실성이며 꿈을 숭배하는 의례와 다양한 종교의식이다. 특히 목공예와 의복의 미적 감각 및 창조성이 호평을 받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러한 아이누의 공예를 ‘근대화 속에서 사라져간 일본문화의 재생’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上野昌之 2004, 1-11). 하지만

2) 아이누 보호법의 폐지에 영향을 준 요소 중 하나는 1990년부터 시작되었던 국제연합의 선주민족 인권보호와 문화재 보호를 위한 노력이다. 국제연합이 작성한 선주민족의 문화유산 보호에는 “선주민족의 유산 보호가 실효적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선주민족이 자신의 문화 및 지식체계의 확립과 사회조직의 형태를 함께 발전시키는 권리와 책무도 포함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苑原俊明 2006, 38).

현재 민족문화라고 주장하고 있는 많은 행위들은 전통 세계관에서 벗어난 일상생활이나 관광적인 요소가 가미되면서 변형되고 있기 때문에 민족문화의 원형을 찾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다민족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홋카이도의 아이누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소수에 불과하며 소수민족의 정체성과 문화정책, 인권문제와 그에 따른 저항운동 등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연구들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아이누의 민족문화나 정체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정병호(1995)는 국제적 상황과 일본국내의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에서 아이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 즉 ‘문화의 정치화(politicization of culture)’ 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차별받고 있었던 아이누가 1980년대부터는 홋카이도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그들의 역사와 민족문화가 소개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들에 대한 인식도 함께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최원경(2009)은 오늘날 아이누가 처해있는 상황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사회적 변화 속에서 형성된 ‘아이누상’의 의미를 검토하였으며 탈식민을 향한 활동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르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지영임 외(2012)는 인권회복을 위한 노력의 결실들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다르고 있으며 문화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검토하고 정부가 민족문제를 다문화주의, 다문화공생 담론으로 접근하고 있는 현상을 비판하였다.

조아라(2008; 2011)는 아이누 문화정책과 소수민족 정체성을 일본의 사회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스스로 정체성을 찾기 위한 과정과 재구성되는 민족문화의 의미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아이누 관광지 육성에서 나타나는 공간정치 속에서 지자체의 개입으로 인해 탈색되어 가는 아이누 전통사상(자연공생)을 비판하였다.

위의 연구들의 공통점은 아이누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아직도 ‘선주민족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비판하고 있으며 본 연구자도 동감하는 바이다. 그리고 소수민족의 문제가 이렇게 문화의 다양성 혹은 문화정책 차원으로 단순하게 설명(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 재고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 Ⅲ. 아이누 민족문화의 변화와 아칸아이누고탄의 형성

아이누 민족문화의 변화유형은 크게 첫째, 교류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문화, 둘째, 외압에 의해 변화된 문화, 셋째, 자립을 위해 새롭게 구축된 민족문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財団法人

アイヌ文化振興・研究推進機構 2012, 1).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메이지초기의 와진 침략을 전후로 첫째 유형은 침략 이전의 시기이며, 둘째 유형은 침략한 이후 행해진 보호 및 동화정책 과정에서 변화된 민족문화로 두 유형은 외부요소에 의한 변화에 해당된다. 그러나 셋째 유형은 아이누가 일본국의 일원이 된 이후, 특히 패전이후부터 경제적인 자립이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만들어가고 있는 민족문화이다.

### 1. 외부요소에 의한 변화

첫째 유형은 교류과정에서 형성된 문화이다. 다양한 주변과의 접촉, 교류를 통해 타문화와 자신의 문화가 융합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어 발전되었다. 아이누 민족은 오랜 세월동안 다른 주변국들과 독자적으로 무역과 교류를 하였다.

〈그림 1〉 아이누문화와 일본 역사비교

연대	홋카이도	일본 본토
	조문시대(縄文時代) (채집·수렵시대)	
前300	속조문시대	야요이시대 (도작문화의 전개)
300		고분시대 (정치권력의 신장)
600	요네노 문화 사츠화대 (아이누문화 형성)	나라·헤이안시대 (율령국가의 전개)
800		
1000	근세 아이누 시대	가마쿠라·무로마치시대 (해외무역의 전개) (지역소국가의 분립)
1200		
1300		
1400		에도시대 (막부체제의 정비)
1500	스와다이묘진에고토바 성립(1356) 코샤마인의 전쟁(1457) (산단(山丹)교역의 성행) 사쿠샤인의 전쟁(1669) 쿠나시리·메나시의 전쟁(1789)	
1600		
1700		
1800		
1900	동화정책에 의한 전통문화 파괴 아이누신법의 성립(1997)	메이지시대 (국민국가의 형성)
2000		

출처: 佐々木高明 1998, 205 에서 편집.

5세기경부터 시작되는 속조몬시대, 사츠몬시대의 토기가 혼슈의 동북지방에서 출토되었고 같은 시기의 동북지역 토기가 홋카이도에서 출토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일찍부터 일본 본토와의 교류가 있었으며 본토의 산물이 전해졌다고 유추하고 있다. 그리고 어업, 수렵, 채집을 생업으로 하였고 곰이나 사슴 등의 가죽으로 만든 의복을 입고 생활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도구는 혼슈로부터 건너온 철제품이나 철을 이용해서 만든 목제품, 옷칠제품 등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본다(財団法人アイヌ文化振興・研究推進機構 2012, 2). 특히 아이누문화 시대라고 불리는 12세기에서 19세기는 일본 본토의 가마쿠라·무로마치시대(1192-1603)와 에도시대(1603-1867)에 해당된다. 아이누들은 14-15세기에 소규모지만 자유롭게 주변국들과 교역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부시대에 마츠마에번(松前藩)이 에조치(蝦夷地, 홋카이도의 옛 이름)에 들어와 1600년대 초까지 번주나 상급가신들을 파견하여 와진들과의 교역을 관리하고 조공을 받았다. 그 이후 18세기 초부터는 교역의 주체가 상인으로 바뀌고 세금을 내는 형태가 되었다(出利葉浩司 2002, 109-111).<sup>3)</sup> 이때 거래되었던 교역품은 장시간 운송이 가능하고 상대국에서 구하기 힘든 곰가죽, 곰쓸개, 소형동물의 털가죽, 해달의 털가죽, 독수리의 날개 등 이였고, 와진은 곡물이나 직물, 도자기(그릇) 등과 같은 생필품들이 많았다(出利葉浩司 2002, 113-114).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와진들의 이주도 증가하였는데, 대부분 연어와 다시마를 채취할 목적이었으며 전쟁에서 패한 무사들은 남부 지역으로 이주해서 정착하였다. 특히 마츠마에번과의 무역으로 귀걸이(닌카리, ニンカリ), 목면으로 만든 의복, 식사용 젓가락(이페파스이, イペパスイ), 집안에 까는 돗자리(키나, キナ) 등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현재 아이누의 민구(民具)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財団法人アイヌ文化振興・研究推進機構 2012, 3).

둘째 유형은 외압에 의해 변화된 민족문화이다. 메이지(1868-1912)초기인 1869년부터 ‘에조치’가 ‘홋카이도’라는 명칭으로 바뀌고 본격적으로 와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sup>4)</sup> 이 과정에서 반강제적으로 오랜 세월동안 내려온 전통적인 관습들이 말살되었다.

3) 이후에 이러한 불합리한 교역은 와진과 아이누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19세기에는 동부 구나시리, 메나시 지방에서 민족 간의 전쟁 동기가 되었다.

4) 역사적인 측면에서, 근세시대의 막부들은 아이누 민족을 경제적 상업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인구수가 너무 적었으며 통치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통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에조치는 러시아의 개항요구에 따른 위협을 대비한 일본정부의 외교상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정부의 동화정책도 아이누를 일본인화 시키는 것보다 일본인 식민자(개척민 및 병사)의 수를 늘려 그 지역을 일본영토화 하는 데에 목적이 컸다(小熊英二 2003, 51-55). 메이지시대가 시작되면서 1869년부터 일본정부는 홋카이도에 개척사(開拓使)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이주민들을 보내어 개척하였으며 일본의 새로운 영역으로 포함시켰다.

이들은 ‘보호정책’과 ‘동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누를 일본인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1871년에는 호적법 공포, 농기구 등의 부여, 전통습관의 규제(입술문신 금지, 귀장식 금지, 연어잡이 금지, 일본식으로 이름 개명 등), 일본어 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그들의 민족문화와 생활습관을 금지시키고 공문서에 ‘구토인(旧土人)’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선주민족으로서의 자리 없애기 정책’을 강요하였다. 또한 1872년에는 홋카이도토지매매규칙(北海道土地売買規則)과 홋카이도지소규칙(北海道地所規則)을 공포해서 생활터전이었던 공유지를 와진의 사유지로 규정하였다(윤용택 2001, 132). 즉 아이누의 재산권과 복지·교육에서는 ‘와진 문화로의 동화’가 전제된 것이었다. 특히 1899년에 통과되어 1997년에 폐지되기까지 98년 동안 존속되었던 홋카이도구토인보호법<sup>5)</sup>은 아이누의 공동자산이 정부의 관리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그들의 민족문화도 국가차원에서 반강제적으로 변형시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이누의 생업이었던 야생동물에 대한 사냥(곰, 사슴 등)과 어렵(연어잡이 등)을 정부가 관리하고 법으로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활이나 전통어구들을 이용하는 사냥·낚시방법이 금지되고 수렵기간이나 포획수 등도 규제하였다. 결국 아이누들의 주요 생업이었던 전통 사냥업이 사라지고 다수가 농업이나 일용직 노동자로 전향하였다. 이 과정에서 야생동물을 주식으로 하였던 식문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아이누 여성들이 성인이 되어 결혼이 가능한 나이가 되면 입술 주변에 검정색 문신을 하거나 남성들이 귀걸이를 하는 등의 전통관습들을 미개하다는 이유로 금지하였다. 그래도 쇼와시대(1926-1989)까지는 어느 정도 남아 있었으나 완전히 사라진 민족문화가 많다. 결과적으로 와진의 정책들은 아이누의 민족문화를 말살시키거나 변형시켰으며 일상생활의 형태까지 일본인으로 동화시켰다.

---

5) ‘홋카이도구토인보호법(北海道旧土人保護法)’은 ‘보호법’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은 “모든 아이누 가족1호당 6천-1만5천 평의 미개간지를 농업용으로 부여하고 농기구 구입비로 20엔을 지원하고 처음 몇 년 간만 종자 구입비로 약간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토지를 부여받고 15년 이내에 개간되지 않은 토지는 정부가 몰수한다.” 그리고 “아이누 촌락을 위한 학교와 보건소를 설립하고 교과서와 물품 구입비로 개별 가족에게 약간의 비용을 지불한다.”(山田伸一 2011, 327-8) 그러나 법안 중 제1조에서는 보호 대상을 농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아이누가 많이 거주하는 곳에 초등학교를 세울 것을 요구하면서도 교과목에 아이누어를 포함하지 않았다(尾本惠市 2004, 101-120). 이러한 조항은 아이누의 전통생업이 수렵이고 독자적인 언어를 가진 민족임을 인정하지 않는 항목이다.

## 2. 자립을 위해 만들어가는 민족문화

셋째 유형은 자립을 위해 새롭게 구축된 민족문화이다. 아이누인 스스로가 민족문화의 진흥을 위해 혹은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 민족문화를 이용하거나 보존·계승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이누들의 인권회복이나 복지증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던 패전 이후부터 현대까지 각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문화계승을 위해 재현되는 민족문화가 있다. 1975년부터 문화계승을 위한 노력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통의례의 재현도 증가하였다. 아이누는 신들이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자연이나 사물의 모습으로 인간 세계에 존재한다고 믿었다. 예를 들어 동물이나 식물, 불, 물, 지진, 해일, 생활도구, 질병 등을 좋은 신과 나쁜 신으로 나누어 섬기는 풍습이 있었다. 특히 자연 안에서 신과 인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고 있으며 임무를 마친 동물이나 사물들에게는 이오만테(イオマンテ)라는 영혼을 보내주는 의례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公益財団法人アイヌ文化振興・研究推進機構 2013, 13-17). 이러한 전통 사상과 의례는 와진이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공동체의 약화와 함께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패전 이후부터 이오만테의 문화계승이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닌 정식 의례로 개최하는 지역들이 증가하였는데, 이를 일본정부가 1955년부터 야만적인 행위라는 이유로 금지하였다. 이 금지령은 2007년부터 제례의식으로 인정받으면서 해금되었다(公益財団法人アイヌ文化振興・研究推進機構 2013, 14-17). 어린 꿈을 잡아서 한동안 사육하다가 살생하는 의식을 야만적이라고 비판한 것인데, 현재에는 허가받은 몇 마리의 곰만을 대상으로 의례가 거행되고 있다.

아이누의 자연관이나 역사를 담아 창작된 행사가 있다. 아이누의 정신적·사상적 측면을 내세워 전통성을 상징화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한 것이다. 이 행사의 특징은 행사지 주변이나 전도의 아이누들이 모여서 카무이노미라는 신에게 기원하는 의례를 거행함으로써 정체성을 회복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예를 들어 신히다가정(新ひだか町)에서는 아이누 민족의 영걸인 샤쿠샤인의 법요를 기념하는 샤쿠샤인법요제(シャクシャイン法要祭)를 1947년부터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있다(上山浩次郎 2016, 179). 아이누들은 이 자리에서 전통의식을 거행하고 민족무용과 음악, 음식을 함께 즐기면서 자신들의 공동체 의식을 다진다. 그리고 아이누가 아닌 사람들과도 함께 즐기면서 교류한다.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 만들어진 민예품이 있다. 아이누는 예로부터 솜씨가 좋은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960년대부터는 곰, 부엉이, 여우와 같은 동물 목각이나 니포포(ニポポ)라고 불리는 남자와 여자 목각인형 등이 유명해졌다. 예를 들어 곰 목각은 야쿠모정(八雲町)

의 도쿠가와농장(徳川農場) 농장주가 빈곤한 농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다가, 유럽 농민들이 농한기에 곰 목각제품을 만들어 팔아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을 보고 착안한 것이다. 또한 그 당시 일본전국에 ‘지역색이 있는 공예품을 만들어 농촌생활의 경제와 문화를 개선하자는 운동’인 농촌미술운동이 확대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28년에 도쿠가와농장에서 곰 목각을 만들게 되었으며 이것이 유행하면서 전도로 확산된 것이다.<sup>6)</sup> 그러나 아이누 조상들은 곰이나 다른 동물들을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조각(彫刻)하면 신에게 벌을 받는다고 하여 목각하는 행위를 금기하였다. 또한 니포포에게는 신앙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사냥을 나갈 때 니포포에게 기원하면 사냥을 잘 할 수 있다고 믿었고, 잡은 동물을 요리할 때는 먼저 니포포의 입에 바치는 풍습도 있었다. 그리고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는 니포포의 목에 장신구를 걸어놓았다.<sup>7)</sup>

이렇듯 현대를 사는 아이누에게 민족문화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의 강화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사가 때로는 관광 상품이 되어 전통적인 사상이나 의례를 음미하기 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다. 특히 민예품의 경우에는 작품성보다도 아이누가 제작했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부여된다. 즉 자립을 위해 민족의 정체성을 상품화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 3. 아칸아이누고탄의 형성

아칸정(阿寒町)은 홋카이도의 동부 쿠시로시에 위치한 면적이 739.25km<sup>2</sup>이고 인구가 5,540명(2010년 통계)<sup>8)</sup>인 광대한 산악과 원시림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름답지만 험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천연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특히 특별천연기념물인 마리모, 두루미, 일본지정 민속문화재인 아이누고식무용 등으로 유명한 관광지이다. 그 중에서도 최대 관광지인 아칸 호수가 위치한 아칸 호반(阿寒湖畔)지역에는 아이누 마을인 ‘아칸아이누고탄’이 있다. 주변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칼데라 호인 아칸 호수를 중심으로 주거지와 관광 관련시설물들이 밀집되어 있다. 기후는 1년 중 가장

6) 참고: 홋카이도 박물관 <http://www.hk-curators.jp/archives/1416>(검색일: 2016.07.10)

7) 참고: 위키백과사전 <http://ja.wikipedia.org/wiki/%E3%83%8B%E3%83%9D%E3%83%9D>(검색일: 2016.07.10)

8) 참고: <http://www.city.kushiro.lg.jp/shisei/toukei/chousakekka/0002.html>(검색일: 2016.07.10.)

긴 겨울(11월-5월)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고 짧은 봄(6월), 여름(7월, 8월), 가을(9월, 10월)이 있으며, 여름에도 덥지 않고 선선하다. 그러나 천연온천이 나오는 지역으로 예로부터 야생동물들의 피한처(避寒處)로 이용되었으며 아칸 호수에서는 다양한 어류들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서식지로 최적의 장소이다.

아이누가 아칸 지역에 처음 살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8000년에서 5000년 전인 조몬 시대 초기부터로 아칸정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다. 주로 아칸 강변을 따라 소규모의 고탄<sup>9)</sup>들이 분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아칸 호반에는 사냥하기 위해 잠시 머무는 오두막만 있었고 마을은 없었다(阿寒町役場 1986, 557).

아칸 호반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1893년에 와진들이 아칸 호수원산인 각시송어의 이식사업을 위한 채란장을 설치하면서부터이다. 특히 같은 해에 화산인 메아칸악(雌阿寒岳)의 유황채굴이 시작되면서 1897년 이후부터는 겨울철에도 공사인부나 직공들이 호반으로 이주해 왔다. 이에 노동자들을 위한 주거지와 쉼터가 필요하였고 아마우라 마사마치(山浦政吉)가 1908년에 처음으로 여관업을 시작하였다(阿寒町 1966, 701-702). 또한 1906년에 가고시마현 출신의 마에다 마사나(前田正名)가 모범림(模範林)과 모범목장의 경영 및 이민 장려를 목적으로 약 5000hr의 산림을 구입해서 아칸 호반을 개척하였다. 그 당시 개척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원시림들이 훼손되었다. 이러한 선대의 산림 훼손을 반성하고 자연보호의 관점에서 산림을 경영하고 관리하게 된 것은 3대 원주인 마에다 미츠코(前田光子, 1912.3.21-1983.4.18)가 1983년에 마에다잇포엔(前田一步園)재단을 설립하면서부터이다. 그녀는 생전에 아이누 민족과 아이누문화진흥에 관심이 많았으며 여러 분야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홋카이도뿐만 아니라 전국 혹은 세계 각지에 아이누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래서 지금도 아이누들은 “하포(아이누어로 ‘어머니’라는 뜻)”라고 부르며 존경하고 있다(阿寒町役場 1986, 557-561). 또한 의미 있는 업적 중 하나가 아칸아이누고탄을 설립한 것이다.

이 고탄은 아칸 호수 주변으로 분산되어 살고 있었던 아이누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면서 형성된 마을이다(阿寒町役場 1986, 589). 마에다잇보엔재단이 1954년부터 주거공간과 경제활동 공간(민예품점, 식당 등)을 한 건물에 배치한다는 발상에서 시작한

---

9) 고탄(コタン)이란 아이누의 ‘마을’을 의미하는 단위명이지만 지연이나 혈연에 의해 형성된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아이누들은 한 집단 존재해도 고탄으로 표현하였다. 과거 홋카이도에 존재하였던 고탄 중 가장 큰 고탄은 31세대가 살았던 히라토리고탄(平取コタン)이라고 추측한다. 1858년 쓰여진 『쿠수리일지(久摺日誌)』의 내용에 의하면 아칸 강을 따라 소규모(2~5세대)단위의 고탄들이 다수 존재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阿寒町役場 1986, 117-118).

것으로 1955년부터 가옥이 건축되었다. 위치는 강 주변에 주거지를 택하는 전통 방식에 따라 바람과 물이 좋은 아칸 호수의 서편 산중턱 숲 속으로 정하였다. 처음에는 11 가구로 시작하여 1999년 10월에는 34 가구의 102명(남성50명, 여성52명)으로 증가하였다(煎本孝 2001, 328-329). 설립 당시에는 수도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점점 세대수가 증가하면서 편의시설들이 증가하였다. 지금과 같이 변화가와 연결된 이유도 아칸 호수에 관광객과 이주민들이 증가하면서 관광 관련시설과 주거지 등이 호수 서편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그림2〉 참조).

〈그림 2〉 아칸 호반 시가구역내 토지소유자 구분도



출처: 마에다잇보엔 재단 홈페이지<sup>10)</sup>

특히 1970년대에 일본의 국내 관광산업 성장으로 고탄의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그 당시 관광시즌(7월-9월)이 되면 주변에 거주하는 아이누들까지 호반으로 모여들어 상업과 서비

10) 출처: <http://www.ippoen.or.jp/totikanri1.htm#阿寒湖畔市街区域内土地所有者区分图>(검색일: 2016.09.10.)

스업에 종사하였다(阿寒町役場 1986, 121). 2014년 통계에서 36가구의 130여명<sup>11)</sup>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민예품의 제작 판매, 아이누 요리점이나 일반식당 경영, 전통무용공연, 온천호텔 근무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 생업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고탄은 이 지역이 유일하다.

이에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까다로운 조건들을 통과해야 한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입주자 부부 중 어느 한쪽이라도 본적이 아이누민족'이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마에다잇포엔재단의 추천과 허가뿐만 아니라 기존의 입주민들도 모두 찬성해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 직계가족을 중심으로 대를 이어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존 거주민들의 소개와 추천으로 입주한다. 만약 자손들이 대를 잇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그 공간을 다른 아이누가 무상으로 공급받게 된다.

이 지역은 '고탄'이라는 명칭이 붙어서 아이누 전통마을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와진의 도움으로 구축된 '아이누를 위한 공간'이다. 대부분의 가옥들은 주거지 공간이 겸비된 현대식 2층 건물이며 인공적인 상업지역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의 생활양식도 아이누의 전통양식 보다는 일반 일본인들과 동일하다. 물론 소수이지만 조상들을 모시는 방식이나 의례, 사물을 대하는 자연관 등을 여전히 지키고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 고령자들도 있다. 그래도 아이누라는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여러 세대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지만 자연스럽게 전통문화가 일상화되고 다음 세대로 쉽게 전수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소수민족의 입장에서 이러한 경제적인 자립과 공동체 생활의 기반이 조성된 공간은 민족 정체성과 결속력을 구축하는데 효과가 크다.

#### IV. 아칸아이누고탄의 새로운 민족문화와 정체성

아칸아이누고탄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관광지 내에 있다. 설립 당시부터 주민들의 생업은 민족문화를 기반으로 한 관광업이었으며 60여 년 동안 이주민들의 이동이나 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이들의 생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관광 상품인 민예품 판매, 전통공연, 마리모축제를 중심으로 정체성과의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민족문화의

11) 2013년 2월 조사에서는 130여 명 중 60세 이상 28명, 고등학생이하 30여명으로 젊은 층이 많다.

계승적인 측면에서 전수 환경을 파악하였다.

## 1. 민예품 판매

초기 아칸 지역의 경제적인 기반은 마에다잇보엔에 의해 진행되었던 임업관련 사업이었다. 1934년에 그 일대가 아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경제적인 기반이 임업에서 관광산업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에 1939년부터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목제 조각품의 생산과 판매가 시작되었다(煎本孝 2001, 328). 특히 고탄이 설립되면서 이들의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 민예품 제작과 생산을 위한 공동작업장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전국에서 아이누들이 모여들었다(阿寒町役場 1986, 589). 민예품 제작에서 가장 많은 것은 곰이나 부엉이, 여우 등의 동물을 형상화한 목각 작품이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아이누의 전통사상에서 동물들을 조각하는 행위를 터부시 하는 경향이 강하였지만 고탄 주민들은 상품화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림 3〉 아칸 호수 주변 상점가 안내지도



출처: 아칸관광협회 홈페이지<sup>12)</sup>

호반온천 지역에는 3개의 대표적인 상점가가 있다. 동편의 마리모마을 상점가, 중앙의 행운의숲 상점가, 서편의 아이누고탄이다. 이 중 아이누고탄은 아이누의 상징적인 조형물이 있는 중앙광장<sup>13)</sup>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게 점포들이 조성되어 있다. 대부분 민예품이나 조각품 판매점, 민족음식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십 년 전에 사라진 공동작업장의 존재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초기부터 공예품 제작과 판매가 중심이었다.

공동작업장이 사라진 현재에는 각 판매점마다 독자적인 작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점내 작업장에 공방을 열어 제작기술을 전수하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민예품 판매점에서는 점점 직접 제작한 것보다 다른 공방이나 국내외 타 지역에서 만든 물건들의 전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관광객들의 다양한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고 더 많은 아이누공예품이나 작품 등을 소개하고 판매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경기악화로 인한 관광객과 구매의 감소로 순이익이 줄어서 직접 제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1년 중 관광객들이 몰리는 6월부터 8월까지의 성수기<sup>14)</sup>에는 온천호텔뿐만 아니라 고탄 내 기념품판매점도 가장 수입이 높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면 관광객들이 점차 감소하는데 10월에 있는 마리모축제가 끝나면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관광비수기가 시작된다. 따라서 이곳의 많은 주민들은 비수기동안에는 점포를 운영하지 않고 생활비를 벌기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청소아르바이트나 식음료 관련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겨울철에는 약2달 동안(1월, 2월) 매일 밤 불꽃축제, 겨울철 레포츠(스키, 스노모빌, 썰매, 빙어낚시 등), 아이누들의 사냥을 체험할 수 있는 ‘에조시카 사냥체험캠프<sup>15)</sup>’ 등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으나 큰

12) 출처: <http://www.lake-akan.com/areaguide/index.html>(검색일: 2016. 09.10)

13) 중앙에 아이누가 신으로 숭배하는 대형 올빼미 등의 조형물들이 있다. 이 광장은 평상시에는 주차장이나 방문자들의 사진 찍는 장소, 양 옆으로 늘어서 있는 상점 및 식당을 가기 위한 진입로 등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가장 큰 목적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전통의레나 축제 등을 거행하기 위한 모임의 장소이다. 설립 당시부터 계획되어 중앙에 만들어져 민족의 전통의식과 의례를 함께 거행하고 공유하는 공간이다.

14) 관광 붐이 사라지고 홋카이도 여행객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6월과 7월은 외국인관광객들의 단체여행이 주요 수입원이다. 그리고 8월에는 온천여관이나 호텔의 숙박료가 가장 비싸지는 시기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단체관광이 감소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고 있었던 홋카이도민들의 늦은 여름휴가지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기념품판매는 외국인 단체관광객들이 증가하는 6월과 7월에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5) 에조시카란 홋카이도 사슴을 칭하는 것으로 예로부터 아이누들의 의식주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야생동물이다. 또한 야칸 호수 주변은 에조시카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겨울철 서식지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에조시카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고 있으며 농작물의 피해와 전차 충돌이나 로드킬로 인한 교통장애, 산림파괴 및 산림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아이누 전통사냥에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민예품 판매의 감소는 아이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전통의 계승에 대한 측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비록 처음 시작부터 아이누의 전통을 계승한 것은 아니지만, 상품의 일반화와 상업화로 인해 전통문화진흥이라는 본연의 의미가 탈색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관광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값싼 외국 소품들이 민예품으로 다량 판매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은 더 이상 전통계승자라기 보다는 일반 관광 상품판매점에 지나지 않았다. 즉 경제적인 상황은 이들의 민족 정체성의 유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탈민족성이 들어나고 있다.

## 2. 전통공연

고탄의 중앙광장 정면과 뒤편에는 아이누의 전통 생활도구를 전시해 놓은 ‘아이누 생활 기념관’인 ‘폰치세(ポンチセ, 아이누어로 작은 집)와 민족무용을 볼 수 있는 ‘온네치세(オンネチセ, 아아누어로 큰 집)’ 그리고 2011년 12월 4일에 현대식 건물로 새롭게 건립된 아칸호온천 아이누시어터 ‘이코로(イコロ)<sup>16)</sup>’가 있다. 이는 1986년에 고탄 주민들로 구성된 ‘아칸아이누공예협동조합’이 설립되면서 보다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고탄내 상점들을 선전하기 위해 활성화되었다.

먼저 ‘아이누 생활 기념관’인 폰치세는 전통적인 아이누의 민가를 재현한 것으로 전통생활 도구나 의복이 전시되어 있다. 폰치세가 건립되기 이전에는 고탄내 상점주들이 자신들이 소장하고 있었던 아이누 민구나 귀중품, 골동품 등을 점포 안에 소규모로 전시해 두고 관람객들에게 약간의 관람료를 받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칸아이누공예협동조합과 고탄 주민들이 자금<sup>17)</sup>을 마련하여 1991년에 폰치세를 설립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아이누의 고령자를 해설사로 상주시켜 아이누문화를 보다 쉽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재에는 관람객의 저하로 해설사는 상주하지 않는다.

---

대한 관심과 예조시카로 인한 산림피해, 인간과 자연의 소중함과 공생, 아이누의 자연관 등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캠프이다.

16) 아이누어로 ‘보물’이라는 의미. 이곳에서는 아이누문화와 전통생활상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통음악, 놀이, 인형극, 축제, 무용 등이 소개되는 ‘아이누 고식무용’이 거의 매일 개최되고 있다. 7월에서 10월까지의 매일 4-6회, 5월에서 6월에는 4회, 11월에서 4월까지의 겨울철로 인한 비수기로서 매일 1회씩 개최하고 있다.

17) 고탄의 주민과 아칸아이누공예협동조합이 공동 작업으로 작업비용을 지불하였다. 재료와 작업비가 약 600만 엔이었고 전시품은 고탄 주민들에게 약 400만 엔에 구입하여, 총 1000만 엔 정도가 소요되었다(아이누고탄협회 平澤隆二, 60대, 여성).

온네치세는 고탄 주민들이 아이누 민족무용인 '아이누고식무용(アイヌ古式舞踊)'을 향연하기 위해 설립한 곳이다. 처음에 아이누전통건축물 양식으로 건립되어 겨울철에는 추운날씨로 공연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수차례 보수되었다. 불규칙적으로 공연자를 초빙하고 공연 후 각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형식이었다. 따라서 아칸아이누공예협동조합은 1995년에 6000만 엔을 들여 현재의 온네치세를 걸립하고 공연일정을 매일, 수회로 규칙적으로 하여 공연자들의 안정적인 수입창출을 이끌었다. 이러한 고정적인 공연이 관광수입으로 이어지면서 건축한지 10년 만에 연간 수입액이 1억 엔을 넘었다(煎本孝 2001, 330). 특히 일본의 중요무형 민속문화재인 아이누고식무용이 2009년 9월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서 해외 관광객들의 호기심과 관심도 높아졌으며 이 지역의 인기 관광 상품 중 하나로 정착하였다. 이 고식무용은 아이누의 수렵이나 놀이 등을 소재로 하고 있고 마을신인 섬부영이나 산신인 곶 등을 소재로 한 각종 춤들이 등장한다(岩崎義純 2013, 1-5). 그러나 야외에서 공연했던 '이오만테 불꽃놀이'가 추운 겨울철에는 관람객들과 공연자들에게 불편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과 쿠시로시, 행정 각처의 협력으로 불을 이용한 공연이 가능한 실내공연장인 '이코로'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후부터 편리한 시설에서 다채로운 내용의 전통무용, 악기공연, 전통축제 등을 거의 매일 공연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공연을 담당했던 온네치세는 '아이누 문화전승관'으로 개칭하여 전시회나 개인 및 단체를 위한 체험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이누 문양의 자수 체험, 아이누 악기인 묵크리 제작, 조각 체험, 겨울철에 눈 위에서 신었던 아이누 전통 신발인 칸지키 체험 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연 및 체험, 상품판매는 대부분 성인들이 대상이고 아이누민속공예품 판매와 함께 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취지로 행해지는 관광객들을 위한 민족문화 홍보 수단이다. 따라서 폭넓은 연령대가 함께 즐기고 이해할 수 있고, 관광객 유치와 고탄만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프로그램의 구축이 필요하였다. 그 중 하나가 아이누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아이누인형극으로 2012년 4월 29일에 처음으로 상영되었다(岩崎義純 2013, 1-5). 이것은 타지의 관람객들뿐만 아니라 아이누 어린이들에게도 인기를 얻으면서 고정적으로 공연되고 있다. 즉 고식무용과 함께 아이누의 민족문화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형극의 연출 제작과 시나리오 담당자는 아이누가 아니며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도입단계에서는 와진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인형극 공연과 고식무용의 출연진들은 고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고탄내 모임에서 고식무용을 교육받은 사람들로 희망자에 한해서 중학교를 졸업하면 무용수로

참여할 수 있다. 대부분 무용은 젊은 여성들을 위주로 행해지고 있으며 고령이 되면 체력적인 문제로 민요를 담당한다. 무용수는 거의 매일 2-3차례, 1회 40-45분씩 공연하고 월급을 받는다. 관람객들이 많았을 때에는 일반회사원보다 급여가 많아서 젊은 층들이 선호하였다고 한다. 현재에는 고식무용 전수자의 이미지보다도 무용수라는 직업으로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다.

현대식 건축양식의 공연장에서 화려하게 각색되고 축약된 아이누의 전통공연으로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아이누를 소개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전승하고 있다. 하지만 공연장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이누와 관계없는 관광객이며 이들은 짧은 시간동안 아이누의 만들어진 공연에 입장료를 지불하고 관람한다. ‘아이누 민족문화’라는 이미지보다는 ‘관광객들을 위한 쇼’라는 이미지가 더 크게 느껴진다. 또한 내용면에서도 아이누 보다는 와진의 아이디어가 더 많이 가미되어 각색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이누의 공연은 아이누 후손들을 관광 자원화한 것이며 민족무용이나 연극을 자원으로 ‘민족문화 보여주기’를 빌미로 한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더욱이 외부인들뿐만 아니라 아이누 후손들이 각색되고 만들어진 보여 주기식의 전통문화를 고유한 전통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잘못된 전통 인식으로 인한 민족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 3. 마리모축제

‘마리모(マリモ)’는 일본열도, 유라시아북부, 북아메리카의 정해진 지역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녹조식물의 하나로 지름이 1cm에서 크게는 30cm의 구형 담수산조류에 속한다. 특히 일본에서는 아칸 호수에서만 볼 수 있는 귀중한 종으로 학술적인 가치가 높다(熊本孝 2001, 323). 이에 1921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나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동경으로 판매되거나 도채(盜採), 유람객, 낚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였다. 더욱이 패전 이후 그 주변지역의 수력발전 개발로 인해 호수면이 저하되면서 마리모의 사멸(死滅)이나 개체수의 급감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그 해결방안으로 1950년부터 마리모축제를 개최하였다. 행사시기는 10월초인 가을철 관광 비수기로 관광객의 유치를 도모하는 목적도 있었다. 그 결과 1960년(제11회)이후부터는 관광효과를 거두게 되었다(熊本孝 2001, 323-324). 이 축제는 아칸정(阿寒町), 아칸관광협회, 아칸호아이누협회가 주최지만 민족의 식(의례)을 아칸호아이누협회장 이하 고탄 주민들이 담당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관광객들이 참가할 수 있는 공식행사와 아이누들만 참가할 수 있는 카무이노미(신에

게 기도드리는 의식)와 이치아루파(조선공양(祖先供養))의 비공식행사가 2일에 걸쳐 진행된다. 아이누들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이 행사에 초창기에는 쿠시로 등의 인근 고탄의 장로(長老)들만이 참여하였지만 매년 행사가 거듭되면서 홋카이도내의 아이누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煎本孝 2001, 333-335)<sup>18)</sup>. 아이누의 존경받는 최고령자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영혼 보내기 의례’를 인용하여 새롭게 구성된 민족의례이지만, 전통적인 자연관을 기반으로 자연훼손에 대한 반성과 자연에 대한 감사와 공생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축제와 함께 생겨난 “마리모의 전설”이 있다. 마리모에 담겨진 비극적인 사랑을 주제로 한 이야기로 아이누가 아닌 와진에 의해 만들어진 전설이다. 이 새로운 전설이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으면서 마리모 관련 캐릭터 상품의 홍보 이미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역 이미지로 정착되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축제가 마치 아이누의 전통문화인 것처럼 소개되고 더 나아가 관광 상품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축제를 주최하고 있는 아이누인들의 반응은 달랐다. “오래전부터 중요한 기원이 있을 때 제사를 지냈고 그 제사를 오랜 세월동안 이어왔다. 마리모축제의 경우 처음에는 마리모를 호수에 반환하는 의식으로 단순한 발상이었지만 아이누민족이 가지고 있는 자연신앙 사상을 모토로 일 년에 한 차례씩 마리모를 통해 대자연에 감사하는 감사제(感謝祭)이다. 더욱이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홋카이도의 자연보호운동보다 먼저 시작된 것”이라고 변론하였다(煎本孝 2001, 324-5). 또한 이들은 아이누의 자연공생 사상과 자연관 및 신앙을 기리는 의식과도 같으며 이러한 행사를 통해 주변의 아이누들이 모여 전통의례를 한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축제는 아이누의 조상들처럼 의례의 주최자, 즉 존경받고 있는 고령의 아이누를 중심으로 한동안 잇고 살았던 민족의식을 공동 의례의 형식을 통해 구현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매년 반복을 통해 전통적인 의례와 사상을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들이 전수·계승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교육의 효과도 있다. 더욱이 외부인들(관광객)에게 이들의 전통의식을 소개하여 아이누 민족의 사상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는 데에 가치가 크다.

이리모토 타카시(煎本孝 2001)는 마리모축제의 창조과정을 연구하면서 아이누의 경제적인 생활기반인 관광문화 혹은 관광경제와 정신적 측면(세계관), 그리고 축제가 결합되어 새로운 아이누문화를 형성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축제의 생성 및 유지 과정에서

18) 1953년(제4회)에는 30명의 아이누가 참석하였으나, 1971년(제22회)에는 전도 각지로부터 150명, 1981년(제32회)에는 300명, 1999년(제50회)에서는 500명이 참석하였다(煎本孝 2001, 335).

아이누와 와진과의 공생·협력관계가 잘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민족 간의 공생관계가 50여 년 동안 축제를 지속시켰다(煎本孝 2001, 320-343). 즉 새로운 민족문화를 형성하는데 민족 간의 역할분담보다도 민족을 넘어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현상은 서로의 민족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와진에 의해 만들어진 마리모의 전설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진 소수민족의 새로운 민족문화가 마치 오랜 세월을 통해 형성된 선조들의 사상이 담긴 신화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거나 미화 될 가능성도 있다.

#### 4. 민족문화 전수의 현실과 교육

관광지인 고탄의 경제는 여름철 성수기의 수입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일본의 국내 관광산업의 악화로 인해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경제적인 사정도 어려워졌다. 따라서 많은 주민들은 겨울철 생활비를 지역 은행에서 빌려서 사용하고 관광성수기인 여름철에 상환하거나, 손님이 적은 겨울철에는 점포를 닫고 대도시나 주변 온천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제 악화는 자녀교육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근처의 교육기관으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한 곳씩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이상부터는 쿠시로 시내나 대도시인 삿포로시로 진학하는데, 교통비나 거주비 등은 부모에게 큰 부담이다. 물론 아직도 남아있는 아이누에 대한 차별도 상급 학교로의 진학에 영향을 준다. 더욱이 상급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는 고탄으로의 귀향을 희망하는 청년들도 거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부모들도 자신들의 가업을 계승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도시의 생활을 더 희망한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정착한 젊은이는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이와 같은 현상은 민족문화의 전승에도 큰 장애물로 대두되고 있다.

아이누의 전통문화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이 구전(口傳)과 대대손손으로 체험교육을 통해 전수되어 왔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와진이 들어오면서 언어뿐만 아니라 어렵게 전수된 생활양식, 공예기술, 놀이문화, 음악과 악기 등의 많은 민족문화를 사라지게 하였다. 더욱이 부모세대들은 외관적으로 다른 생김새나 아이누 민속을 따르는 것에 주변으로부터 차별받을 것을 염려하여 스스로가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풍습을 행하거나 전수하는 것을 꺼렸다.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상황은 세대 간의 갈등에서도 잘 나타난다. 현재 고탄이 설립되고 60여 년이 되었기 때문에 1세대, 2세대, 3세대가 거의 한집에 모여 살고 있다.

고령의 부모세대인 1세대(60-80대)와 중년의 자식세대인 2세대(30대-50대), 어린 손주별이 되는 3세대(1-20대)이다. 고탄 설립 초기에 이주해 오거나 이곳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1세대는 그들의 언어나 민족문화에 대한 지식을 잘 전수받지는 못한 세대이다. 즉 사회문화적인 차별과 환경으로 인해 자신들의 전통문화나 언어를 습득하지 못하고 어른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습득할 수 있는 모임들이 만들어졌다.

모임은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특히, 1월에서 2월)에 매주 1회씩 저녁시간에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누어 교실과 민족무용 교실이다.<sup>19)</sup> 기초 아이누어는 1,2세대가 가르칠 수 있지만, 사실 그들도 민족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화과정은 외부강사를 초빙한다. 하지만 언어에 대한 관심이 적어서인지 참여자가 10명 내외이다. 이것은 홋카이도의 일반인들 사이에서 아이누어가 점차 인기를 얻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현상이다. 반면 민족무용 교실의 경우는 참여도가 높다. 1세대에게 배워온 무용을 2세대가 3세대에게 어릴 때부터 전수한다. 이는 향후 아이누고식무용의 무용수로 활동할 수 있는 기초교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민족예술은 오랫동안 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민족의 공동작이며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부분들이 많다. 따라서 전수교육은 현대에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변해가는 어린 세대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정체성을 확보하는 민족 교육으로 효과적이다(정상박 2010, 20).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은 집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공부모임은 공동체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어린 아이누들에게는 점차 사라져가는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과 기술 습득 및 계승, 자긍심 부여 등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없애는 효과도 있다. 또한 이러한 모임은 일반 일본인들과 함께 교육받고 있는 아이누의 후손들의 자기 정체성 찾기와도 연계된다고 본다.

## V. 결론

아이누의 정체성은 '홋카이도의 선주민족'이다. 이를 위해 꾸준히 자신들의 권리와 인권을 찾기 위해 세계의 소수민족 및 인권회복단체들과 교류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족문화연구를

19) 어린이교실은 6시, 성인교실은 7시로 일주일에 한 시간씩 이루어지며 아이누뿐만 아니라 고탄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아이누 어린이교실의 참가자수는 약 30여명이고 거의 모든 아이누들이 참여하고 있다(2013년 2월, 고탄 주민 西田, 50대, 여성).

통해 자신들의 위치를 객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와 인권,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다. 특히 현대에 들어오면서 소수민족 문제가 문화정책으로 초점이 이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민족문화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물론 일본정부가 소수민족의 문제 해결방안으로 그들의 민족문화를 인정해주고 계승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정책화에 노력한 것이지, 아이누 민족에 대한 선주권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지 소수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인정해주고, 비록 그것이 이국적인 관광 상품으로 이용될지라도 자신들의 존재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아칸아이누고탄의 사례에서도 잘 드러나 있었다. 하나의 마을을 이루어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민족문화의 이미지로 브랜드화한 상품들을 이용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새로운 민족문화를 계승·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누가 아닌 타민족, 더욱이 이들을 침략했던 일본인들의 조언이나 아이디어, 지원 및 투자로 아이누의 민족문화가 정립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민족의 전통사상이나 정체성보다는 그 민족이 가진 일반적인 이미지만을 이용해서 관광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정체불명의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물론 이것은 소수민족의 홍보나 이해를 돕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고유한 민족의 전통문화의 의미와 형태는 점차 변질되고 있다. 즉 당사자인 소수민족들에게 잘못된 전통문화가 전수(계승)되어 민족 정체성이 혼돈되거나 오히려 약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민족문화가 그들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다음 세대로 이어져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민족문화를 새롭게 구축하고 인식하는데 더욱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사례는 국내외의 이주 집단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의 다문화 사회에서 이러한 소수집단의 문제는 집단 간의 갈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이 급속히 변하고 있는 문화접변 속에서 소수집단의 문화형성과 정체성의 변화는 앞으로 우리가 더 고민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 김광익. 2006. 종족의 현대적 발명과 실천. 종족과 민족. 아카넷, 15-84.
- 김재호. 2011. 신자유주의와 민속의 변화. 문화변동과 한국민속학의 대응과 역할. 민속학, 13-41.
- 서해숙. 2011. 농촌마을의 민속변화와 문화적 대응. 문화변동과 한국민속학의 대응과 역할. 민속학, 176-206.
- 이연옥. 2013. 민족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일본 민족주의. 민족연구 55, 52-75.
- 이창식. 2006. 전통문화와 문화콘텐츠. 역락.
- 이광규. 2006.新民족주의의 세기. 서울대학교출판부.
- 에릭 홉스봄 외. 박지향 장문석 옮김. 2013.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 윤용택. 2001. 日本における少数民族の権利：アイヌ民族の権利を中心として. 비교법 연구 2, 33-42.
- 오구마에이지 지음. 조현설 옮김. 2003. 일본 단일민족신화의 기원. 소명출판.
- 지영임 · 우에다히로아키. 2012. 일본의 다문화공생과 아이누정책. 민족연구 49, 64-82.
- 정병호. 1995. 민족국가 이데올로기의 변화와 소수민족 아이덴티티의 부활-일본 홋카이도의 선주민 아이누민족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족학연구 1, 301-319.
- 정상박. 2010. 민속예술 교육의 목적과 민족 정체성. 민속학과 민족문화의 정체성. 민속원.
- 조아라. 2008. 일본의 아이누 문화정책과 소수민족 정체성의 사회적 구성. 문화역사지리 20(3), 1-14.
- 조아라. 2011. 아이누 민족문화 관광실천의 공간정치: 홋카이도 시라오이의 경험. 국토지리학회지 45(1), 107-124.
- 최원경. 2009. 토인에서 선주민족으로 - 근현대 일본에서 아이누의 위상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인류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피터N.스텐스. 문명식 역. 2003. 문화는 흐른다. 궁리.
- 煎本孝. 2001. マリモ祭りの創造：アイヌの帰属性と民族的共生. 民俗学研究 66(3). 320-342.
- 小熊英二. 2003. 日本人の境界. 新曜社.
- 桑原真人. 1982. 近代北海道史研究序説. 北海道大学図書刊行会.

- 山田伸一. 2011. 近代北海道とアイヌ民族. 北海道大学校出版会.
- 上山浩次郎. 2016. 第8章 アイヌ文化の知識と体験. 調査と社会理論. 研究報告書. 北海道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院教育社会学研究室, 177-212.
- 佐々木高明. 1998. アイヌ文化と沖縄文化ー日本文化との比較の視座から. 萱野茂アイヌ文化講座Ⅱ. 草風館.
- 出利葉浩司. 2002. 近世末期におけるアイヌの毛皮獣狩猟活動について. 国立民族学博物館調査報告 34, 97-163.
- 上野昌之. 2004. 柳宗悦のアイヌ二論について: 「オリエンタリズム」との関係から. 早稲田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紀要 別冊 12(1), 1-11.
- 苑原 俊明. 2006. 先住民族の文化遺産の国際的保護: 国連の動向とアイヌ民族. 大東法学 48, 37-60.
- 尾本 恵市. 2004. 先住民族と人権(1): アイヌと先住アメリカ人. 桃山学院大学総合研究所紀要 29(3), 101-120.
- 岩崎義純. 2013. アイヌシアター「イコロ」の人形劇. 環オホーツクの環境と歴史. サッポロ堂書店.
- 公益財団法人アイヌ文化振興・研究推進機構. 2013. アイヌ民族: 歴史と現在ー未来を共に生きるために. 公益財団法人アイヌ文化振興・研究推進機構.
- 財団法人アイヌ文化振興・研究推進機構. 2012. アイヌプリーアイヌの心をつなぐー. 財団法人アイヌ文化振興・研究推進機構.
- 阿寒町役場. 1986. 阿寒町史.
- 阿寒町. 1966. 阿寒町.
- 社団法人北海道アイヌ協会 <http://www.ainu-assn.or.jp>
- 釧路市 <http://www.city.kushiro.lg.jp>
- Wikipedia <http://ja.wikipedia.org>
- 北海道博物館協会学芸職員部会 <http://www.hk-curators.jp>
- 一般財団法人 前田一步園財団 <http://www.ipponen.or.jp>
- 阿寒湖観光公社 <http://www.lake-akan.com>

● 투고일: 2016.10.30.    ● 심사일: 2016.11. 1.    ● 게재확정일: 2016.12. 5.

| Abstract |

**The ethnic identity and creation of a new ethnic culture in akan ainu kotan of hokkaido**

Kim Misook (Chonbuk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movements and public opinions about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culture in minorities influence their lives and identities. In view of approaching to cultural diversity, it is realistically increasing that people think minority is 'a minor community with disparate cultures that are present in the area'.

This document looks into the process of creation and maintenance of new ethnic culture generated for the purpose of self-support, connected with the change in national identity of Akan Ainu Kotan(AAK) in Hokkaido.

Unfortunately, people unassociated with the Ainu have played a pivotal role to having creating unidentified products referenced to the only the imagery of Ainu other than its culture just for attraction of the tourists but needless to say, other perspectives view this positive as it is supporting to create an opportunity to introduce minorities and help understand of its culture to the outsiders. But the meaning and form of the cultural shift of Ainu is becoming gradually changed by it.

In result, this case shows that a new national culture created through commercializing with a source of ethic culture is related to weakening the national identity.

**<Key words>** Ainu, Akan Ainu Kotan, Ethnic Identity, Ethnic cultures